

문화방송노보

무단협 1794일째
지명파업 621일째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허유신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12월 15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최승호 사장 첫 조직 개편

제작부문 사장 직할, 시사교양 · 영상취재 조직 복원 사측 '절차 위반' 공식 사과, 재발방지 약속

방송장악 청산과 MBC 재건 과제를 안고 있는 최승호 신입 사장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회사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조직 개편을 공식 확정했다.

새로 바뀐 회사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드라마와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등 제작 부문을 사장 직속으로 두었다는 점이다. 사측은 무너진 콘텐츠 경쟁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사장이 직접 제작 부문을 맡아 강력히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파업 직후 방송장악과 노조 탄압 차원에서 해체됐던 시사교양 조직과 보도국의 영상취재 부서가 복원된 것은 의미가 크다. 기존 기획본부 내 기획 기능과 편성 제작본부의 편성 기능이 통합된 '기획편성본부'가 신설됐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기획편성본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 사장 직할 체제에 편입된 부분들의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직 개편의 내용과는 별개로 사측의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는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 등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 개편 역시 취업규칙변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측은 이번 개편을 앞두고 반드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했지만, 일방적 통보, 미확정 상태의 조직개편안 공개와 언론 유출 등 파행으로 일관했다. 특히 담당 임원이 조합 집행부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편안을 일방 통보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노동조합은 공문을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사측은 어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내왔다.

(관련기사 2·3면)



경영진, 조직개편 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

“사전 청취 절차 묵살” 항의에 공식 사과

복직자 환영행사를 앞둔 지난 11일 새벽, 한 임원 내정자가 노동조합 집행부 한 명에게 스마트폰 메시지로 새 조직개편안을 전송했다. 이 임원 내정자는 행사가 진행 중이던 당일 오전 또 다른 조합 간부에게 조직개편안을 메시지로 전송하고 곧바로 전화를 걸어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다급하니 양해를 구하고 개편안은 그냥 가겠다”고 통보했다. 노동조합에 조직 개편안 내용을 설명하거나 조합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절차는 없었다. 그리고 이 통화 직후인 오전 10시 3분, 경영진은 조직개편안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개 게시했다. 이사회 통과도 되기 전에 초안을 급하게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게시된 조직개편안은 오후에 외부로 유출돼 결국 외부 매체에 기사화까지 됐다. 사측이 뒤늦게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다.

노동조합 집행부 경험도 있고 오래 회사 생활을 한 임원이나 보직간부 개인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조직개편안 내용을 미리 공유하는 것으로 절차를 다 지켰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인간적으로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관련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경영진이 조직 개편이 포함된 사규 개정을 작성·발표할 경우,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정식으로 청취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다. 노동조합 탄압이 극악으로 치닫던 김재철-안광환-김장겸 체제에서조차도 조직 개편이나 사규 개정이 추진될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미리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방문해 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았다.

법과 절차는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 노사 관계에서 임원들은 더 이상 선배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엄연한 사용자 측이다.

조합은 11일 당일 경영진에 문제제기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경영진은 “최대한 빨리 조직을 추스르고 인사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다”며 구두로

제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이틀 뒤 또 발생했다. 경영진은 사내 게시했던 조직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13일 오전 9시 20분쯤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또 노동조합 측에 설명하지 않았다. 당연히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었다. 당초 조직개편안 초안에 기재돼있던 기획 ‘조정’ 본부가 기획 ‘편성’ 본부로, ‘사육개발단’은 ‘사육개발TF’로 바뀌었고, 본부장 및 국실장 보임 요건 등 인사 관련 사규 개정도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이 사실을 이사회 통과 시점에서야 통보했다. “회사 사정이 여러 모로 다급했다, 이해해달라”는 사후 해명뿐이었다.

새 경영진은 결국 법과 절차를 두 번이나 어겼다. 이에 조합은 13일 공문을 보내 “사측이 사규 개정 과정에서 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며 공식 사과와 제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사측은 같은날 회신을 통해 “조합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해 회사는 조합에 사과를 전한다”며 “향후 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에 있어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전해왔다.

조직개편을 해부한다

사장의 제작 부문 직할 가능한가? 기획편성본부장에 과도한 권한 집중 우려 급변한 미디어 환경...전략이 아쉽다

이번 조직 개편의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장이 제작 부문을 직속으로 총괄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 기획본부를 기획편성본부로 바꿔 편성과 예산을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사장이 직접 콘텐츠 행긴다는데...

지금까지 MBC는 사장과 부사장으로 이어지는 직제 아래 드라마와 예능본부, 그리고 편성제작본부 산하의 콘텐츠제작국, 라디오국 등이 위치했다. 그런데 새 조직개편에 따르면 드라마·예능 부문뿐 아니라 시사교양·라디오 부문 역시 본부로 격상하고 사장이 직접 총괄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최승호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을 “제작 부문을 사장 직속으로 두고 강력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장이 제작 부문의 현안을 직접 보고 받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지원해 MBC 콘텐츠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장이 제작 부문을 총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각 제작본부들 사이에 예산과 편성 등 조율이 필요할 경우, 이전까지는 TV제작본부장(2011년 이전) 또는 부사장이 조율했지만, 이 체제에서는 사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제작부문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쟁점들을 조정하느라 결국에는 회사 경영과 콘텐츠 복원 둘 다 놓칠 수 있다.

국장책임제, 벌써 위기?

기획편성본부는 기존 미래전략본부 기획국과 편성제작본부 편성국을 떼어내 한 조직 아

래 묶은 형태로, MBC의 전략 수립·예산 배분·콘텐츠 편성을 담당한다. 편성과 예산을 임원 한 사람이 모두 총괄하게 된 것은 MBC 창사이래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KBS와 SBS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산·편성은 각각 다른 조직에서 담당한다. 예산·편성 기능 하나하나가 사내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조직을 별도로 두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두 기능을 한 데 묶어둠으로써 견제 받지 않는, 아주 강한 조직이 태어났다.

또한 각 제작 부문 사이의 크고 작은 조정 역할 역시 기획편성본부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장이 국장급으로 이뤄진 각 제작본부들의 현안과 조정을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편성본부장이 사장을 대신해 제작 부문을 조정하고, 콘텐츠 제작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 한 사람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기획국을 없애고, 예산과 기획 부서들을 기획편성본부장 직할로 둔 것도 이러한 권한 집중 우려를 높이는 요소이다.

경영진은 MBC 콘텐츠 복원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겠지만, 사장이 제작 부문을 총괄하고, 기획편성본부장에게 권한이 몰리는 상황은 국장책임제의 정신에도 어긋나 원론적으로는 제작자율성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MBC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기획편성본부’라는 명칭도 당초 ‘기획조정본부’였다가 사장의 방문진 보고서 “방송법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편성 책임자가 누구냐”는 지적을 받고 현장에서 바뀌었다.

세밀한 ‘디지털 전략’ 제시돼야

이번 조직개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관심사는 사장이 천명한 ‘디지털 퍼스트’의 철학을 어떻게 반영했는가이다. 경영진은 미디어사업 본부를 디지털사업 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플랫폼 전략을 담당하는 매체전략국을 산하에 두었다.

그러나 급변한 환경에서 뒤쳐진 MBC의 경쟁력을 재건하기에는 불충분해보인다. 지난 7년 동안 비실시간 시청 행태는 폭 넓게 확산되었고, 모바일 콘텐츠 소비가 급증했으며, CJ E&M과 jtbc는 급성장했다. 광고와 사업, 방송과 디지털의 전통적 경계가 사라졌다. 시청자와 광고주에게 세분화된 맞춤형 콘텐츠와 마케팅의 패키지 제공이 요구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러한 기능 중심의 유기적인 결합에 아쉬움이 있다. 각 제작본부로 흩어진 마케팅, 경영본부로 이관된 광고, 디지털 사업본부에 있는 유통과 사업, 부사장 직속의 홍보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영진이 전략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재무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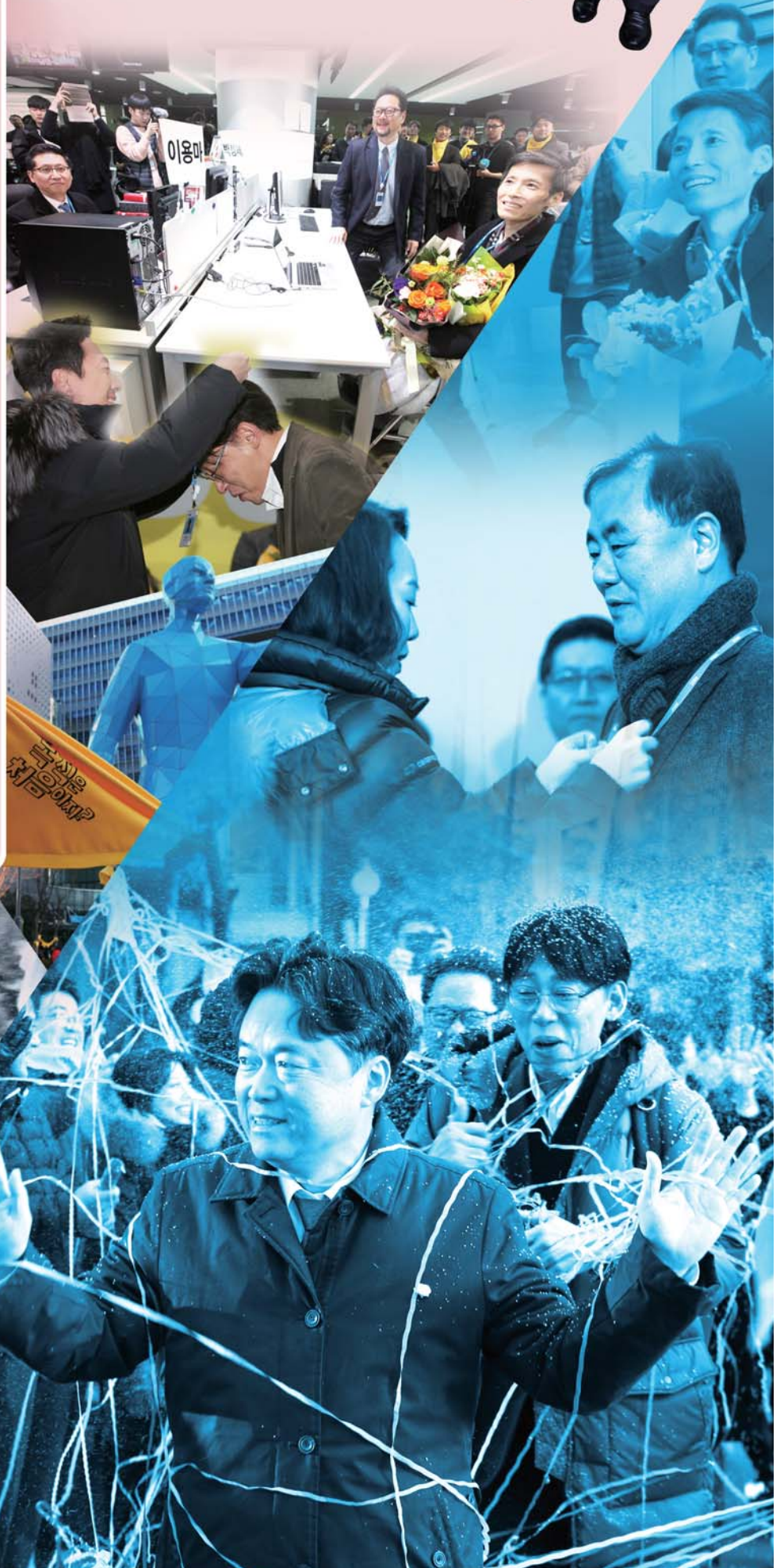
경영진은 이번 조직 개편이 한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합은 사측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연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



어서와~
**복직은
 처음이지?**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다. 최승호, 정영하,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이들은 지난 세월 우리의 눈물이고 응어리였다. 지난 11일 아침, 노랗게 물든 상암의 박수와 환호 속에 이들은 2천여일 만에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 보도국에 “MBC뉴스 이용마입니다”가 울려 퍼졌다. 고맙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 MBC의 ‘진짜’ 상암시대가 막을 올렸다.



회사 망치고 '돈 내놓으라'는 적폐 임원들 지역사 사장 전원도 퇴진 요구 거부

현재 서울 MBC에는 사상 초유의 '무보직' 이사 6명이 존재하고 있다. '할 일'이 없는데 '근무'를 하겠다고 버티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다. 최기화, 김도인, 이은우, 이주환, 김성근, 윤동열 등 김장겸 체제에 부역하며 MBC를 망가뜨린 적폐 이사들이 자진사퇴를 거부한 채 마지막까지 MBC 재건의 걸림돌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돈이다. 각자 약 3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특별퇴직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못 물러난다는 것이다. 특별퇴직위로금이란 임기를 마치기 전 중도 퇴임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회사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재임 3년 미만의 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남은 임기 1년당 연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임기 만료 전 퇴직하거나,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한해서 주어진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지급 조건들 가운데 적폐 이사 6인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지난 7년여 악몽의 방송 장악 과정에서 회사를 망치고 구성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다. 노동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피의자들도, 돈을 요구하기는커녕 회사에 끼친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채무자들이다. MBC 이사들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은 이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이 계속 버티봐야 남은 절차는 방문진의 해임 뿐이다. 끝내 해임될 경우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퇴직금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MBC 파괴' 김장겸 잔당의 파렴치한 버티기

이진숙, 송재우, 심원택, 김현중 등 16개 지

역사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히 안광한·김장겸 등에게 발탁된 대가로 지역성을 파괴하고 공정방송을 무력화하는 데 협력했다. 일부 사장들은 김재철 일당 수준의 노동 탄압에도 앞장섰다. 김장겸 체제가 이미 허물어지고 새 사장이 취임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72일 파업 전후로도 계속돼온 각 지역사 구성원들의 거센 퇴진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서로 남은 임기도 각자 다르지만, 약속이나 한 듯 꿈쩍도 않고 있다. 이들 역시 그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서울과 지역을 막론하고 방송장악과 MBC파괴에 부역한 임원들은 모두 즉각 퇴진하라. 필요할 경우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도 강력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안광한 · 백종문 · 권재홍 · 최기화 · 김장겸

MBC 적폐 임원 줄줄이 검찰 소환

연내 기소 결정

MBC 사장을 지낸 안광한 씨가 어제(14일)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오전 10시쯤 서부지검에 도착한 안 전 사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탈퇴 강요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백종문 씨 역시 이날 서부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김장겸 씨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 김 씨는 MBC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와 유배지 격리 등 노동법 위반 행위의 핵심 피의자이다. 검찰은 다음주 초에 김장겸을 소환해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루 전인 13일에는 이른바 "유휴 인력 격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권재홍 씨(현 MBC플러스 대표)와 민실위 보고서를 무단 훼손하는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최기화 씨 역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올해 안에 이들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두 달간 검찰은 MBC 조합원 3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부당노동행위 피해사실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MBC 사장실과 임원실, 경영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장겸 씨를 비롯한 전현직 MBC 경영진은 체포 영장이 나올 때까지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휴대폰을 분쇄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노동조합은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작가 무더기 해고한 김현종의 '소신'과 '전문성'은?

■ <PD수첩 - MBC 몰락, 7년의 기록> 제작 후기

목포에서 들은 이야기는 조금 묘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김현종 목포MBC 사장은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장 자리에 크게 미련이 없고, 퇴임하면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봉고차를 몰고 다니겠다고 말만 놓고 보면 참 따뜻하다. 방송사 사장 자리를 내려놓은 후에는 학원 봉고차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소박한 어떤 삶의 풍경이 그려졌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다. 묘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공포스러웠다. <PD수첩> 작가 여섯 명을 한꺼번에 해고하고, 멀쩡히 프로그램 제작하던 PD들을 쫓아내고 징계했던 사람에게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 한쪽에서는 생계가 끊기고 가정이 무너졌는데, 그 순간 그는 퇴임 후의 생활을 한가하게 그리고 있다 생각하니 여러 감정이 혹 밀려들었다.

<PD수첩-MBC 몰락, 7년의 기록>이 방송된 후 김현종 사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은 인격살인'이라 했고, 프리랜서 작가 6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것은 '평소 소신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시청자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했다는 요지의 글이다. 그의 소신과 전문성은 대체 무엇이었기에 '우리를 한꺼번에 자르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30분 넘게 눈물로 매달리는 작가들에게 '훈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며 면박줄 수 있었을까. 그 소신과 전문성과 시청자에 대한 순수한 마음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싶어 나는 목포로 갔던 것이고, 거기서 그는 제대로 된 대답 한 마디를 들려주지 않은 채 점심을 먹기 위해 제너시스 EQ900 뒷문을 세계 닫고 떠나버렸다. 첫 번째 인터뷰 시도 후 세 시간을 기다려 그를 다시 만났지만 그 때도 그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사장실 문을 닫았다.

2010년 작성된 국정원 문건은 <PD수첩>

프리랜서 작가 전면 교체'를 적시하고 있다. 그로부터 2년 후 작가 전원 해고가 실제로 벌어졌다. 이를 실행한 것은 당시 시사제작국장이었던 김현종 사장이다. 그에게 국정원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절차다. 김현종 사장은 국정원과의 관계를 물었을 때 대답을 계속 피하다가 "PD들 작가들 다 쫓아내고 지금 지역사 사장까지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 묻자 그때서야 "모든 주장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모호한 대답을 던지고 떠났다. 의문은 가시지 않았다. 길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의 관계에 대해선 즉답을 내놓지 않았던 김현종 사장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누구의 지시로 작가들을 전원 해고한 겁니까?" 그리고 남은 질문 하나 더. <PD수첩>을 3년이나 했던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을 상대로 언론피해 구제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김현종 사장에게 묻는다. "국정원의 MBC 장악을 막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서정문 PD (편제부문 조합원)

MBC 신임 감사 박영춘씨 선임

"감사 보조기구 확대 개편해 적폐 청산하겠다"



MBC의 신임 감사로 박영춘 전 MBC 인력자원국장(사진)이 선임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어제(14일) 이사회에서 박영춘, 성경환, 최종영 등 최종후보자 3명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박영춘 후보를 방문진 감사로 내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박영춘 감사는 프리젠테이션에서 감사 보조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특별 기구를 만들어 "2018년 상반기에는 적폐 청산, 하반기에는 본사와 관계사의 특별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전 임

원들의 사규 위반 ▲징계와 해고 ▲부당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시용기자와 경력사원 채용 과정의 문제 ▲영상 지침, 왜곡 보도 등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 문제 ▲국정원과 MBC의 블랙리스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길용 전 울산 MBC 사장의 횡령과 배임중재 의혹, 김세의 기자의 인터뷰 조작 의혹 등 부실 감사가 명백한 사건들도 재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 MBC는 무너진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과제를 안

고 있다. 그 전제조건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신임 감사가 시급한 과제로 꼽은 과제들은 노동조합과 MBC 구성원들도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온 의혹들이다.

그러나 지난 7년 방송 장악 시기 김재철-안광환-김장겸 체제의 감사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그래서 지금 MBC에는 적폐가 썩어있고 감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신임 감사가 방송장악 청산의 막중한 사명감으로 선임 과정에서 밝힌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길 기대한다.